

[사회]

5·31 지방선거 D-50

‘유권자의 힘!’... 불법선거 설자리 없다

광주시의회 S의원은 최근 기관카드(업무추진비)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 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광주시선관위가 S씨를 고발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한 유권자가 보낸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공증한 문서였다.

광주·전남 시민이 60건 제보 전체 적발건수의 36%나 차지

지난 3월30일,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명함을 돌리다가 선거부정감시단원에 적발됐다. 감사단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현상사진을 첨부, 곧바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B씨는 지난 1월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선거운동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담은 6천여명에게 일

괄 발송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은 불법. 문자메시지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포함돼 정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18일 이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를 받은 시민은 이를 선관위에 제보했고, B씨는 경고를 받았다.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5·31 지방선거의 불법·탈법을 막는 큰 힘이 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검

증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전개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자발적 선거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신고포상금제’도 불법을 제어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10일 현재 부정·비리선거사범 168건(광주 34건·전남 134건)을 적발했다. 이중 유권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통한 단속은 60건으로 35.8%에 달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의 27.5%(961건 중 265건)보다 8.3% 증

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많이 신고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 문자메시지 운동을 ‘경미한 위반’으로 여겼지만, 선관위 직원들에게까지 문자가 오는 등 극심해지자 앞으로 엄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선관위 고경숙 홍보계장은 “일부에서는 제보자들을 ‘선과라치’(선거 파과라치)라고도 비난하지만, 이들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매우 ‘소중한 존재’”라면서 “이번 선거는 예년보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5·31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탈법선거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0일 현재 ▲광주 4건 5천780만원 ▲전남 2건 1천만원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4월 11일 (음 3월 14일) 날씨. 광주, 전남 지역 날씨 정보와 주간날씨, 해돋이, 해질 시간,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등 날씨 관련 정보.

광주과학고 단계별 전형 도입 전남과학고 내신반영비율 줄여

2007 입시요강

2007 과학고 입시요강 (단위:명)

광주과학고가 2007년도 입시에서 학생의 영재성을 관별하는 기초탐구 능력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2단계인 전형형을 3단계로 늘린다.

Table with 4 columns: 지역, 학교, 정원, 특 징. Lists admission details for Kwangju Science High School and Jeonnam Science High School.

10일 광주과학고에 따르면 2007년 입시에서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학생의 영재성을 관별하기 위해 2차 전형에서 기초탐구 능력검사를 도입·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입시에서는 1차 전형(내신성적 300점, 각종 대회 입상 실적 등 가산점 15점)과 2차 전형(기초탐구능력 검사 200점)을 합쳐 특별정원 12명(전체 모집정원의 20%)을 제외한 모집 정원의 1.5배 수를 선발한 후 3차 전형(심층면접 200점)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2006년 입시에서는 1차 전형에서 특별정원을 제외한 모집 정원의 1.5 배수를 뽑고 2차 전형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전형 일정은 ▲원서교부 10월2~9일 ▲원서접수 10월9~11일 ▲1차전형 합격자 발표 10월13일 ▲2차 전형 10월21일 ▲3차 전형 10월28일 ▲최종합격자 발표 11월4일 등이다.

전남과학고는 2007년 입시에서 특별전형 13명(전체 모집 정원의 20%)에 대한 가산점 적용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내신성적 반영 점수를 낮추기로 했다.

입시 관계자는 “우선 1단계 전형 통과를 좌우할 교과 성적에서 자신의 성적이 지원 학교 조건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2단계 전형에서는 수학과 과학 중심의 사고력 및 창의력 검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진장된 취업 설명회 전남대 종합인력개발센터 주관으로 10일 오후 전남대 옹골홀에서 열린 ‘한국스리엠(주)’ 채용 설명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중국산 ‘독성소금’ 불안

암유발 아질산염 함유... 수입여부 확인 안돼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질산염이 함유된 ‘독성 소금’이 중국에서 대량 적발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중국산 천일염이 주로 김치재료 등 채소를 절이거나 생선에 간을 하는 등 식품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산물 파동에 이어 다시금 불안감에 빠져있다.

10일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소금은 30만t(30kg들이 660만 포대)으로 수입액은 217억원에 달한다. 이중 천일염은 20만t이며, 나머지 10만t은 가공용과 식염용이었다. 중국산 천일염 수입량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생산량(28만t)의 71.4%에 달하는 양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소금은 ▲산둥(山東)▲푸젠(福建)지방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질산염(亞硝酸鹽, nitrite) =과다섭취할 경우 혈관 확장·해모글로빈 기능저하 등의 증세를 일으킨다. 체내 화합물과 결합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염무국은 최근 후베이(湖北)성과 칭하이(靑海)성에서 제조된 소금을 적발, 조사 중이다. 이 소금에는 아질산염 성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쓰촨성 염무국은 ‘독성 소금’이 공업용 첨가제나 석고분, 석재 등으로 위장돼 철로를 통해 쓰촨성의 여러 도시로 유통됐으며, 지금까지 적발된 불량 소금은 모두 1천 800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법 소금이 한국 등 인근 국가에 수출됐는지, 쓰촨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팔려나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안=조원필기자 wncho@

병원 밥값 최대 1,825원 부담

6월부터 보험 적용 오는 6월부터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환자는 한끼당 680원에서 최대 1천825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심) 회의를 열고 병·의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기본식 가격을 3천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 품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대 가산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 식당을 경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기본식을 4천300원으로, 가산액을 붙일 경우 최대 6천370원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평균식과 분류는 각각 9천950원과 1천900원으로 정액 책정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한 식대의 20%만 분담이 지불되며 가산액의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형 병원에 입원해 한끼당 8천원짜리 식사를 해왔을 경우 앞으로는 식대 5천680원 중 본인부담금 1천825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경위 근속승진 탈락자 오늘 향의집회

하위직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10일 서울 태평로 코리어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단행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사들 전원의 승진을 요구했다. 또 하위직 경찰관들이 회원들로 활동 중인 ‘한국사이버 시민마약감시단’도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경위 근속승진 탈락자 전원 구제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번 근속 승진에서 탈락한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사는 186명이며, 전남청은 검찰반 등을 통해 이들의 집회 참석 여부 등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당선확신!! 선거제도개선, 선거법, 위도법, 푸에기법, TV토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Tel: 061-626-4523-4, 017-8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빌딩 관리사무소. Tel: 011-401-4000, 011-402-4000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Tel: 0611-383-8283

삼보전기온플랜트. 삼우상사. Tel: 061-278-4747, 233-6267, 524-8207